

■ **농식품부 2019년 농정방향 대통령 업무보고**

- **사람중심의 농정개혁 본격화 일자리 창출 최우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농촌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년 농정의 중점 6대 과제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세계는 이상기후 탓에 식량사정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으로 곡물자급률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친농 현안간담회 개최결과**

- 일시 및 장소 : 12월 14일, 서울 양재동화훼센터 장미홀, 회원사 등 50여명 참석
- 비료공정규격 개정안 협의
- 비료의 이물질 기준 마련(제6조)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에 비의도적으로 비닐,플라스틱 동물뼈 등이 혼입되어 비의도적 혼입 허용기준 설정→찬성
- 동애등에분 등의 염분기준을 0.5% → 2.0% 이하로 완화(별표3) :동애등에분 염분기준이 너무 낮아 제품 상용화곤란→ 유기복합비료도 염분기준 완화건의
- 상토1호 및 상토2호의 병원성미생물 기준 설정(별표2) →찬성
- 석회처리비료의 수분함량 등 개정: 석회처리비료 의한 악취, 침출수 등 방지→찬성
-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사용가능한 원료 확대 : 음식물폐기물건조분말과 가공계분을

사용가능한 원료로 확대 ▶ 반대의견 제출 *그외 혈분 규격 등 변경 건의

● 비료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중 리신분석법 등 일부개정

○ 리신 분석법 및 계산방법 개정 : 리신단백질 Type 2(RIP 2)에서 서브유닛 A와 서브유닛 B의 함량 중 가장 적은 함량을 리신함량으로 본다. 다만, 서브유닛 A 또는 B만 분석된 경우 불검출로 본다 ※ 이 방법대로 하더라도 초과검출되는 사례가 있어 10PPM 설정이 무리라는 결론이므로 방법과 기준 재 검토 필요

● 유기농자재중 비의도적농약 검출시 처분기준 차등화

(현행) 1회 검출시 공시취소 및 회수, 폐기

(개선) 비의도적 검출시 1회 판매중지.회수.폐기→ 2회 공시취소

※비의도적 판단기준 : 검출된 농약성분이 0.05PPM을 초과하는 수준이더라도 약효를 나타낼 수 없는 미량일 경우 공시사업자가 고의가 아니라는 원료수불부 등 불가항력적이라는 사유 제출 소명 *시행시기 : 시행규칙 개정시

● 작물군별 효과표시제 : 협회서 그룹화 근거자료 제출시 개정검토

(유기농 약제 효과 등록 쉬워지나 농민신문10.27자 참조) 참고자료 당회 제출요망

* 작물군별 효과표시제는 작물군범위 등을 신중히 검토후 차기 개정

● 아주까리박 허용물질 사용조건 개정안

(수정안) 아주까리박을 사용한 자재는 농진청장이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리신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의 경우에도 잔류농약검사성적서 제출의무화

※ 친환경농자재 동남아수출. 대북지원방안 등 회의자료(당회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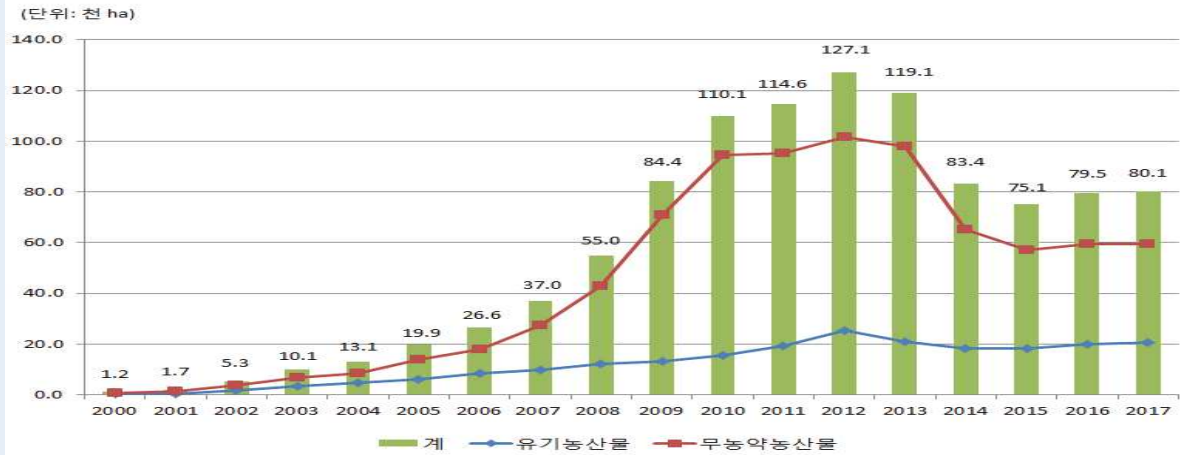
▣ 2018년도 친환경농자재산업 결산과 전망

2018년 농자재산업 이상기후 및 농자재 덜 사용추세와 유기질비료 보조축소 등으로 평균 5% 감소...내년도에도 하향추세 이어 지겠으나 비료 등 남북지원 변수... 활성화 예상

● 친환경농업 현황

○ 2017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80.1천 ha
출하량은 전년 대비 13.1% 감소한 496.4천 톤임. 유기농산물의 인증면적과 출하량은 전년대비 각각 4.1%, 3.2% 증가, 무농약농산물 인증면적과 출하량은 0.3%, 17.0% 감소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수는 전년 대비 2.5천 호 감소한 59.4천 호임. 이추세가 2018년에도 지속 친환경농산물 농가의 호당 인증면적은 다시 상승세로 반전,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생산농가의 호당 인증면적은 전년대비 0.3%(6.2%) 증가한 1.5ha(1.3ha)추세



① 유기농업자재 시장동향

- 유기농업자재중 토양개량·작물생육용자재는 무·유기질비료시장과 병해충관리용자재는 농약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자체 보조사업과 연동돼 있는 특성상 농약 및 비료시장과 마찬가지로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동반 어려움 지속됨. 16년 저농약농산물 인증폐지로 2014년 대비 반토막까지 큰폭 축소됐다가 2017년에는 하락을 멈추고 3% 정도 반등한 추세가 올해도 유지됨에 따라 친환경농자재 시장도 병해충관리가 1100억 정도, 토양개량·작물생육용이 2300억원 정도로 전년대비 3%정도 감소된 것으로 파악됨 수출은 일부업체 선방 7천만불 초과예상. 내년 PLS영향 수요 쪼금 증가 및 대복지원 기대
- 유기질비료시장은 유기농공시유기질비료와 정부보조사업유기질비료 시장으로 구분되나 올해 정부 지원예산이 1600억에서 1490억으로 110억원이 삭감되고, 내년에도 1341억원으로 149억이 삭감됨에 따라 유박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퇴비업체의 치열한 경쟁과 농우바이오 등 대형업체들이 진입함에 따라 약 5%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민선호도 향상에 따른 고정수요로 8000억원 시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① 작물보호제 시장동향

- 전년 1조5천억에서 3%↓, 출하량 9%↓감소추정, 내년에는 기후변화와 대복지원이 변수
- 수도용 살균제는 작년 840톤, 매출액 1,130억원에서 올해 829톤, 1160억원으로 약 30~40억원 증가했으나, 수도용 살충제는 작년 1046톤, 매출액 892억원에서 2018년 803톤으로 802억원으로 90억원 감소.
- 원예용 살균제는 지난해 5046톤, 3,910억원에서 올해 4675톤, 3826억원으로 약 84억원 감소했으며, 원예용 살충제는 지난해 5236톤, 4,816억원에서 올해 4565톤, 4416억원으로 무려 400억원 감소.
- 제초제는 작년 6145톤, 3886억원에서 올 5598톤, 3909억원으로 9%나 감소 (12.18자 농기자재신문추정자료 인용)

① 무기질비료 시장동향

- 농업용출하량 914천톤 전년 1,031천톤대비 11.3% 감소, 내년 30~40만톤 대복지원 촉각
- 질소질 대표비종인 요소는 전년 149천톤에서 올 144천톤으로 3.4% 감소
- 요소 및 암모니아 등 국제원자재가격은 중국 환경강화정책으로 인한 수출감소 및

중소업체 요소생산 가동중단 및 암모니아 수입증가와 함께 미국의 이란제제 등 중동 지역 수급불안정으로 가격 지속상승중이나 내년 대북비료지원 30만톤...활성화 기대

- 요소 가격 : ('17) 268\$/톤 →('18.5) 286→('18.10) 352→('18.11) 360
- 암모니아 가격 : ('17) 303\$/톤 →('18.5) 302→('18.10) 384→('18.11) 400
- 농협 납품물량 줄어 들고 비료가격도 계속 하락 비료경영수지 적자상태 누적

▣ 내년도에 달라지는 농산업관련 제도법령



- ◇ 농약관리법 : 농약의 판매·유통 이력관리. 농약안전 정보시스템 구축 *농약 PLS제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 계도 강화, 고발 등 처벌은 완화예정
- ◇ 비료관리법 : 비포장 비료 유통경우도 지자체에 사전 신고

-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 기존농장 500m이내 닭·오리사육 제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 닭·오리·계란에 대한 이력관리제 도입
- ◇ 식물방역법 : 수입물품 취급자의 외래병해충 신고의무 부과
- ◇ 농지법 :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능한 근거 마련

* 그 외 2019년 고향세 도입 기정사실화, 내년 시행시기 촉각

▣ 비료관리법 개정안(경대수의원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 농촌 약취 민원 해소 기대...비포장 비료 관리감독 강화

비료사무 농진청→ 농관원 이관을 전제로 한 정부입법안은 여전히 계류중



경대수의원은 "충북지역 음식물쓰레기의 무단매립이 확인된 공급량만 14천톤에 달해 주민들의 항의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염우려가 있는 비료 공급제한 ▲ 비료의 목적외 공급사용제한 ▲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등 관리의무 부과 ▲기준에 못미친 불량비료 제한 ▲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을 방치 비료업자 등은 수거·폐기 조치외에도 형사처벌

● 이와관련 JTBC 밀착카메라(12.17일자)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고급 비료로 둔갑..보조금도 타내"로 가축분퇴비업체 및 음식물처리업체 등의 제보로 보도됐다.

"농가가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유기질 비료를 써야 하나, 가축 사료로 쓰겠다고 한 음식물 쓰레기가 유기질 비료로 둔갑되는 현상이 포착됐다. 작년에만 유기질비료에 수백억원 국가보조금이 지급됐다"며 뺑뺑이 보도됨. 이에 대해 농진청은 공정규격개정을 미루고 12월 27일 공청회를 개최 재 의견수렴할 예정임.

▣ 내년 유기질비료 예산 149억원 축소...농가생산비 ↑ 우려

국고 지원단가 포대당 1310원→1100원으로 줄어...농업인 자부담 늘어 문제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1600억원에서 올해 1490억원, 내년에 1341억으로 감소됨에 따라 유기질·부속유기질비료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질비료 국고 지원단가도 포대당(20kg) 1310원에서 1100원으로 농업인 자부담이 늘고 가축분의 자원화율 하향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신청량이 지원사업의 예산을 초과해 예산증액을 지속 요구해 왔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지역구의원 막판 끼워넣기 숙원예산이 많아 농식품부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면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 이어서 내년도 예산신청시 농식품부의 분발이 요구된다. 기재부는 농약 PLS 예산증액을 핑계로 '18년 심의초반에 삭감해 버렸다.

▣ 2030 친환경농업 혁신 비전 선포...일부단체 인증제중심 친환경농업이 환



경농업 망친다, 시대에 걸맞는 친환경농업 비전 확산 필요

●유기농업학회 및 친환경농업단체는 생태환경보전과 건강한 먹거리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이라는 비전 2030과 환경, 건강, 관계에 대한 원칙과 지향을 공포했다. ●생산자는 '공공재 생산의 주역임을 인식한다' 소비자는 '국가, 사회의 환경보전 목표 달성에 핵심 주체임을 인식한다' 연구자는 '친환경농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 IFOAM아카데미 Konrad가 북한 유기농업 특강, 제1주제 단국대 김호 교수가 친환경 유기농업의 정책과 제도변화 및 향후 발전방향, 제2주제 조완형 원장이 '친환경 농산물 유통 실태대책, 제3주제 IFOAM-Asia 정만철박사가 '한반도 생태농업지대화의 방향을 발표했다.

▣ 실용화재단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설명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효능·효과 표시 공시제품의 확대를 위해 ▲비료를 주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반응인 비효의 경우 (기준)무치리구대비 15%이상 효과 → (개선)통계적으로 무치리구 대비 효과 인정 ▲약효의 경우 (기준)무치리구 대비 60퍼센트 이상→ (개선)통계적으로 무치리구 대비 50%이상 ▲비료·농약 등록제품 효과시험성적서 제출 생략 등 변경기준을 설명했다

▣ OECD “생태계 보전위해 농민이 지켜야 할 환경기준 세워라”



한국 질소수지 가장 높아 농약·비료 사용기준 담은 농업환경정책 수립 필요, 후계인력부문 농업 전문교육 강화하고 고령농 자발적 은퇴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도 시급, 민간 연구개발 촉진 주문 농촌 기반시설 구축 강조하고, OECD는 한국 농업 혁신,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를 통해 환경기준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또 고령농 은퇴촉진, 후계농 양성정책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한농연, 김지식회장 연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0일 오후 전북 장수군 한국농업연수원 대강당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행된 선출직 임원 선거에서 김지식 후보가 차기 중앙회장에 선출돼 연임됐다. 또한 한여농중앙연합회 이명자 회장도 연임됐다.

[지방단신]

▣ 신선농산물 수출통합조직, 내년 배·토마토·포도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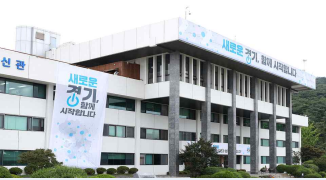
=출혈경쟁 막기 위해...농식품 수출확대 계획' 조직 중심 지원체계 개편

=국산농산물 원료비중 50% 이상 가공식품 해외판촉비 지원한도 상향

● 배·토마토·포도를 대상으로도 신선농산물 수출통합조직이 만들어진다. 또 국산 원료 비중이 높은 수출품목은 정부 지원이 대폭 늘리는 수출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 버섯류와 파프리카·딸기에만 있는 수출통합조직을 내년에는 배·토마토·포도로 확대하고 해외 판촉행사비도 1회당 5천만원 한도인 지원을 7천만원으로 인상, 올 1068개 수출업체별 역량평가결과로 맞춤형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도, 군 급식에 친환경·지역 농산물 우선 공급

= 내년 포천지역 부대 시범실시 접경지역 농가소득 증대 기대



● 경기도가 군 급식에 친환경·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도는 군 장병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지역 농산물 제공을 위해 '지역농산물 군급식 시범사업'을 당장 1월부터 포천지역 군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도는 군 급식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농가 1700여명을 육성한다. 16억2700만원을 투입 ▲친환경농산물 공급가격 일부 지원 ▲비닐하우스·농기계·저온저장시설 등 농산물 연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군납 참여농가 조직화 교육·컨설팅 ▲군납 농협의 역량강화 (조직화·계획생산 등)에 나선다.

▣ 충남친환경농업협회 공식 출범



충남친환경농업협회가 지난달 충남도청에서 창립대회를 하고 공식 출범했다. 충남친환경농업협회는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 개발과 농가교육, 소비자 홍보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소비를 총괄하고 농민권익을 대변한다. 협회의 조직은 생산관리위원회, 가공위원회, 지역농협으로 이뤄진 농협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구성됐다.

▣ 전남도,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시행 농가당 월30-200만원



전라남도는 지자체 최초로 내년부터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지난 18일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가는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당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서천군도, 농업인월급제 확대

충남 서천군이 관내 전 지역에 농업인월급제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키 위해 지난 17일 서천·판교·서서천·한산·동서천·장항농협 등 지역농협 6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단신]

▣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 2017년 북한의 인구는 2,501만 명으로 남한 5,145만 명 대비 1/2 수준이고, 남북한 총인구는 7,646만 명,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명목)은 36조 6,310억 원으로 남한 1,730조 4,614억 원 대비 1/47의 수준으로 나타났음.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만 원으로 남한 3,364만 원 대비 1/23 수준임. 2017년 북한의 무역총액은 55억 5천만 달러로 남한 1조 521억 73백만 달러대비 1/190 수준으로 나타났음. 2017년 북한의 발전 전력량은 235억 kwh로 남한 5,535억kwh 대비 1/24 수준으로 나타났음.

● 식량작물 생산량

2017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470만 톤으로 남한 447만 톤 대비 23만 톤 많고, 쌀 생산량은 219만 톤으로 남한 397만 톤 대비 1/2 수준이지만, 옥수수 생산량은 167만 톤으로 남한 7만 톤 대비 22.8배 많음 <2018년12월19일 통계청 보도자료>

▣ 대통령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북방 농·수산업분야 진출 활성화방안



▶ 목표 : 2022년도 북방지역 농기자재 수출 1억불, 식량 1백만톤 확보
= 러 극동지역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 조성 지원 등 수산투자 활성화
◇ (농업) 스마트팜.종자 등 선진기술의 농기자재 수출을 확대하고
흑해지역 신흥 국제곡물 시장 진출로 한국 농산업의 세계진출 견인

◇ 정부는 진출지역을 중앙아시아.흑해로 확대하고 스마트팜.곡물터미널 등 분야를 다각화하여 농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러시아.중앙아시아에 현지 맞춤형 K-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 품종을 개발.보급**하여 농기자재 수출을 확대한다

▣ 올 신선농산물 수출 역대 최고치... 11억6천만불로 전년대비 18.9% 증가

= 인삼류,배.포도도 크게 늘어 ..올해 신선농산물 수출량이 역대 최고치 경신=

● aT에 따르면 지난달말 신선농산물 수출이 11억6천만불을 기록, 전년대비 18.9% 증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3년도 11월말 10억8천만불 보다 6.9% 증가했다고 밝힘

●중국·미국 홍삼 수요증가로 인삼류(1억6900만불, 23.5%), 한국산 배 대(對)홍콩 등 샤인머스켓포도 수출상승 등 과일 수출과 아세안 딸기 수출 큰폭증가 채소류 수출도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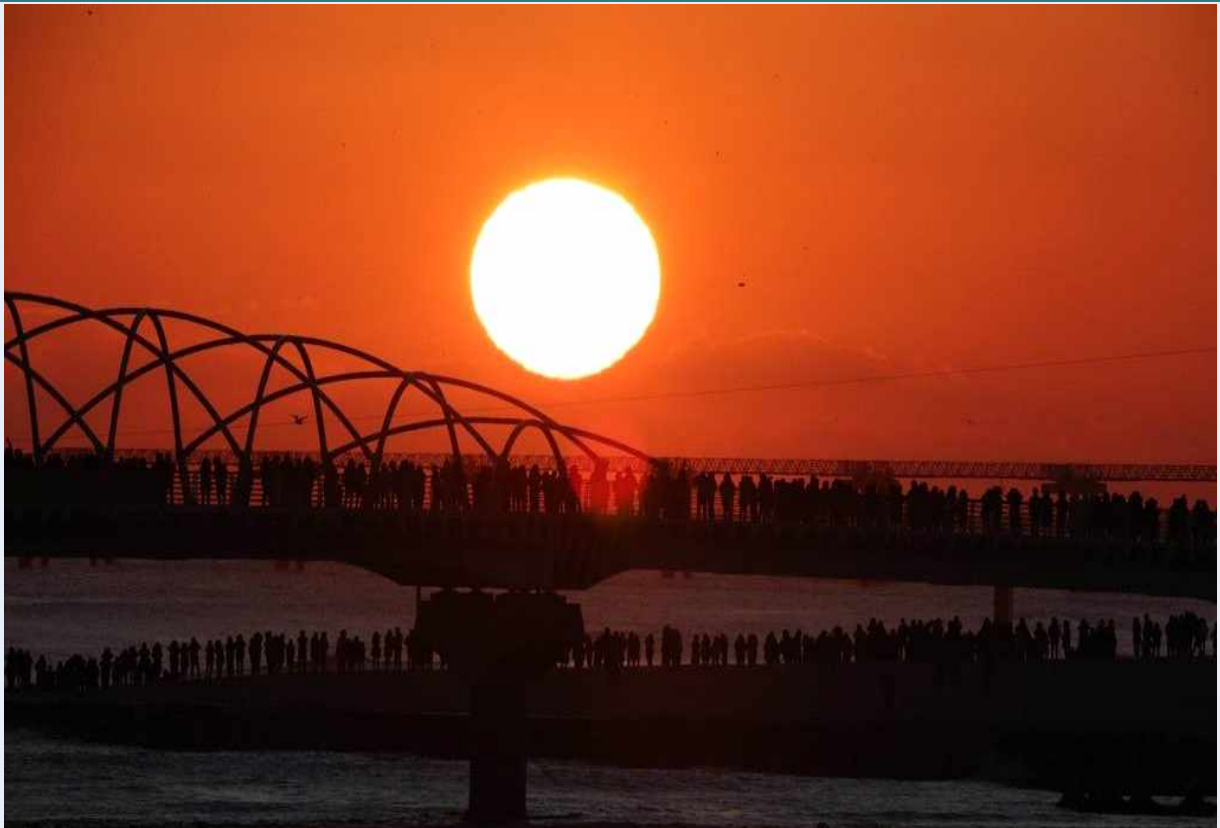
●일본은 파프리카와 김치, 미국은 배와 인삼수출, 동남아지역은 한류열풍에 힘입어 신선농산물 수출이 전년 대비 43.5%나 증가했다. 한편 사드 등으로 수출이 침체된 중국시장은 사드 여파에서 벗어나 인삼과 유자차와 영유아식품 등 수출증가율 13.5% 달성

●박항서 광풍과 한-베트남 FTA 이행 4년차인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19.6% 성장한 4.5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4.7억 달러로 34.4% 성장, 바나나, 자몽 망고 등의 과일.채소의 수입액 증가율이 크게 나타남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제도]

- ▲ 공정시장가액비율 5% 인상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기준으로 부동산 가격변동, 지방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 ▲ 종합부동산세 세율조정= 9·13 대책에 따라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 또 3주택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상향조정된다.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지금까지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이 같은 혜택이 소멸해 분리과세를 한다.
- ▲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 축소= 임대보증금 과세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40㎡이하, 2억원이하로 축소
-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만 가입가능. 해당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
- ▲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도입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관리지표가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2월 상호금융업, 4월 보험업, 5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됨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난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 ▲ 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로 축소 =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내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됨.
- ▲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 확인가능



회원사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